

## 성만찬 – 잔치 또는 굶주림? THE LORD'S SUPPER – FEAST OR FAMINE?

식사는 각자 음식을 가져오는 저녁 식사 모임 (potluck) 이며, 이를 “냄비-섭리”라고 농담 하기도 한다. 각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먹을 음식을 가져온다. 날씨가 좋으면 모든 음식은 야외에 있는 접이식 상(床)에 차려진다. 얼음이 가득한 통은 음료수 테이블 옆에 놓여진다. 아이들은 부지런히 뛰어다닌다. 아이들은 너무 재미있게 놀기 때문에 부모들이 상에 앉아서 음식을 먹게 해야 한다. 감사 기도를 드린 후에 모두 줄을 서서 음식을 접시에 담으면서 대화하며 웃는다. 음식 중앙에는 떡 하나와 포도 나무 열매가 담긴 커다란 통이 있다. 각각의 신자는 줄을 따라가면서 떡과 주스/포도주에 참여한다.

더 어린 아이들은 상의 일정한 위치에 함께 모여 먹도록 한다 (확실히 시끄러울 것이다). 어른들은 위한 의자들(모두에게 돌아갈 정도로 많지는 않을 것임)은 원형으로 놓여지게 되고 부인들이 차지하여 음식을 먹으면서 가정 교육, 아이 키우기, 바느질, 곧 있을 교회 행사, 새로 시작할 교회 등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이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서서 그들의 잔 위에 쟁반을 올려 놓고 먹으면서 작은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세계 문제를 풀기도 하고 신학의 흥미 있는 주제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다. 분위기는 결혼 잔치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는 교제, 격려, 권면, 우정, 돌봄, 본받기, 기도, 권고, 그리고 성숙함을 위한 훌륭한 시간이다. 이런 행사를 하는 이유는? 당신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는 성만찬이며, 신약 스타일이다.

현대 교회에게는 생소해 보이겠지만, 1 세기 교회는 성만찬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예시하는 축하연으로 즐겼다. 성만찬이 초기 형태로부터 바뀌게 된 것은 신약 시대 (New Testament era)가 막을 내리기 전부터였다. 초대 교회의 관습이 이러 했다면 우리는 그들의 예를 따라야 하지 않겠는가?

### 형태와 초점: 잔치 그리고 미래

#### ITS FORM AND FOCUS: A FEAST & THE FUTURE

첫 번째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식사였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이라고도 불린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식사였다. 이 유월절 잔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음식으로 가득했었을 상에 기대어 앉았다 (출 12, 신 16).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이러한 식사는 수시간 지속되었다. 식사 중에 (“그들이 먹을 때에” 마 26:26), 예수님은 떡 하나를 들고 이를 자신의 몸에 비유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미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모두 마시게 했다. 이후, “저녁 먹은 후에” (눅 22:20), 예수님께서서는 잔을 다시 들고 이를 우리의 죄를 위해 곧 흘리실 자신의 피에 비유하셨다. 따라서, 성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정찬 (full meal), 특별히 유월절 잔치, 중에 소개되었다.

12 제자들이 새로 제정된 성만찬이 정찬이 아닌 것이라고 어떤 결론 내릴 수 있었겠는가? 아니면 유월절과 유사한 축제라고 자연스럽게 가정했겠는가?

어떤 그리스어 학자에 의하면,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의 해방과 장차 오실 구세주에 의한 해방, 두 가지를 축하했다.<sup>1</sup> 최후의 만찬 후, 예수님께서서는 유월절의 궁극적인 희생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드시기를 강렬하게 원하셨으며,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눅 22:16). 하나님 나라에서 유월절을 다시 먹게 되는 때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을 주목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루심 (fulfillment)”(눅 22:16)은 나중에 요한이 요한계시록 19:7-9에 쓴 것이라고 믿는다. 요한은 천사의 선포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를 요한 계시록에 기록하였다. 따라서, 최후의 만찬과 모든 성만찬은 어린 양 혼인 잔치에서의 성취를 고대하고 있다. 잔치를 상징하는데 잔치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성만찬을 매주 교제의 정찬으로 거행하는 것은 혼인 예식을 거행하기 전의 예행 만찬과 같다. 권위 있는 *Encyclopaedia Britannica*는 “초기 기독교는 이 제도를 명령으로 여겼다 ...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 잔치 기쁨들을 현재의 삶에서 배워서 알게 되는 것 ...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가 성만찬에 함께 했다.”<sup>2</sup>

바로 그 유월절 저녁, 우리 주님의 마음 속에서 미래 혼인 잔치는 크게 자리를 차지하였다. 예수님은 이를 유월절 잔치 시작 시에 말씀하셨다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눅 22:16). 잔을 전할 때 다시 이를 언급하셨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눅 22:18). 만찬 후 예수님은 그 잔치를 또 다시 언급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겨 ...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 (눅 22:29-30). Fuller 신학대학원 신약 교수 R. P. Martin은 “영광스러운 재림을 고대하는” 성만찬에는 “종말론적 함축들”이 있다고 썼다.<sup>3</sup>

현대 이방인들이 하늘을 구름들과 하프들로 연상하는 반면에 1 세기 유대인들은 하늘을 구세주의 상에서의 향연으로 생각하였다. 구세주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관념은 1 세기 유대인 사상의 공통적인 비유적 묘사였다. 예를 들면, 어떤 유대인 지도자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Blessed be the man who will eat at the feast of the kingdom of God) (눅 14:15)” 라고 말했다. 예수님께서서는 직접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마 8:11) 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식사하는 이러한 하늘 모습은 시나이 경험으로부터 발전했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간 이스라엘 장로들 “그들은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셨더라” (출 24:11). 특히,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라고 언급했다.

그리스도 왕국의 도래와 연관된 이 식사는 누가 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범 기도에도 또한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왕국과 관련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Thy

kingdom come" (11:2, KJV)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바로 다음 요구는 "Give us each day our daily bread" (11:3 NIV) 이다. 하지만, 누가 복음 11:3을 구성하는 그리스어는 번역하기 어렵다. 문자대로는 "오는 날에 속한 우리의 떡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the bread of us belonging to the coming day give us today)" 이다. 그래서, NASV에는 "오는 날을 위한 떡 (bread for the coming day)"라는 註가 적혀있다. 11:2와 11:3을 함께 연결하면, 도래할 구세 주의 잔치 떡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을 것이다. 즉,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소서 - 오늘 잔치가 시작되소서!" 아타나시우스는 이를 "올 세상의 떡"이라고 설명했다.<sup>4</sup>

분명히,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유월절 잔치가 성만찬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큰 변화들이 왔다. 유월절은 1 년에 한 번 있는 행사였다. 성만찬은 매주 거행 되었다. 유월절 규정들에는 양과 쓴 식용 식물이 필요했다. 성만찬은 그러한 음식 요구 사항들에 얽매이지 않는다 - 실제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만찬의 필수 구성 요소에 포도 열매를 포함시키셨다. 모세는 유월절을 위한 포도주를 말한 적이 없다. 이러한 근본적인 변경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이 복음서들에는 별로 기록되지 않았다.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대한 보다 충분한 설명과 본받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몫으로 남겨졌고, 이들은 서신서들에서 이를 수행했다. 사도들의 글들은 본질적으로 복음서 이야기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들에 대한 주석들이다. 유월절에서 성만찬으로 변경되는 것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구두로 제자들에게 식사를 없애고 단지 상징적인 한 모금과 떡 조각을 사용하라고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예수님께서 미래의 완성 시까지 이를 먹지 않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 하셔서 다시 식사하실 때까지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다려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에 대한 답은 사도들의 이어진 관습과 가르침들에서 발견될 것이다.

성만찬에 대한 가장 광범위한 취급은 고린도 전서 10장과 11장에서 발견된다. 고린도 신자들간의 깊은 분열들은 그들의 성만찬 모임들이 선을 행함 보다 악을 행함이 더 많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1:17-18). 그들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 (unworthy manner)"로 성만찬에 참여하였다 (11:27). 아마도 보다 낮은 사회 계층들과 식사하기를 꺼린 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모임에 일찍 와서 늦게까지 남아서 일부는 취하기까지 했음이 분명하였다. 사태를 악화 시킨 것은 일 때문에 아마도 늦게 도착한 노동하는 신자들이 왔을 때는 이미 음식이 모두 소비된 후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채 집으로 갔다 (11:21-22). 고린도 신자들 중 일부는 성만찬이 거룩한 약속의 식사인 줄 몰랐던 것 같다 (11:23-32). 중국 신자들은 이를 "거룩한 식사"라고 불렀다. 이는 새 언약에 대한 표시이다 (It is the sign of the New Covenant).

남용이 워낙 심각하여 주님의 만찬으로 여겨지는 대신 그들 자신의 만찬이 되어 버렸다 (11:21 NASV). 만일 단순히 자신들의 식사를 하는 것이 모든 목적이었다면,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사했으면 그만 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은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했다. 그들의 죄 많은 이기심은 성만찬이 뜻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을 완전히 저버렸다.

그들의 남용이라는 특징으로부터 고린도 교회는 정기적인 정찬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였음이 명백하다. 이에 비해, 오늘날 교회들에서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성만찬에 참석하는 신자는 거의 없다. 골무 크기의 잔에 담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최후의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신 지 약 20 년 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글을 쓴 것을 기억해야 한다. 최후의 만찬이 정찬이었던 것과 같이, 고린도 신자들도 성만찬이 정찬이었음을 또한 이해 했다. 사도들로부터가 아니면, 성만찬을 진정한 잔치로 거행한다는 개념을 그들이 어디에서 얻었겠는가?

예수님, 사도들, 그리고 초대 교회가 성만찬을 정찬으로 거행했으나 고린도에서의 남용 때문에 바울이 중단 시켰다고 완곡하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1599년판 Geneva Bible에 있는 원래의 주석은 “사도들에 의하여 제정되고 제도화되었으며 오랫동안 지켜져 왔고 교회들에서 칭찬 가운데 사용되어 왔지만, 남용 때문에 사랑의 축제들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고 그 사도는 생각했다” 라고 말한다.<sup>5</sup> 이에 우리는 놀라기를, 주님 자신이 제정하시고 나머지 모든 사도들과 교회들이 실시한 것을 사도 한 사람이 가볍게 뒤엎을 수 있었겠는가? 정말로, 그가 할 수 있었더라고 그렇게 했겠는가?

성만찬에 대한 고린도의 남용에 대한 영감된 답은 교회가 정찬으로 먹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바울은 “먹으려고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고 썼다. 너무 배가 고프거나 훈련 받지 못했거나 또는 이기적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 경우에는 “집에서 먹을지니”라고 지시 받았다 (고전 11:34). C. K. Barrett은 경계하기를 “표면상으로 일반적인 비승배적인 먹고 마심은 집에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하지만 바울의 관점은 부자가 그들의 가난한 형제들 보다 좋은 음식으로 즐기면서 자신들의 음식을 먹고 마시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자기들의 집에서 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이들을 기다릴 수 없거나 (33 절) 그들이 과음/과식을 원하면, 단지 불명예 만을 끼치는 관습들로부터 그들이 교회의 공통 식사를 지켜낼 수 있다 ... 바울이 단순히 의미하는 것은 모임에 근엄함과 질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그들의 형제들을 기다릴 수 없는 이들은 집을 나서기 전에 먹으라는 것이다.”<sup>6</sup>

추가하여, “supper” (고전 11:20), *deipnon*, 라는 단어 이면에는 “dinner, the main meal toward evening, a banquet” 이라는 뜻이 있다. 거의 틀림없이, 이는 정찬 보다 못한 것 이 를테면, 식욕을 돋구는 것, 간식, 전채 등을 전혀 의미하지 않는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성만찬을 가리킬 때 *deipnon*를 사용한 것이 정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었겠는가? 성만찬에는 미래를 고대하는 전망들이 있다. 도래할 왕국 잔치인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을 성만찬이 정찬으로 미리 보여준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성만찬이 원래 정찬이었다는 결론 쪽으로 분명히 무게를 싣고 있다. 예를 들면, 영국 신약학자 Donald Guthrie는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친교 식사 분위기에서 제정하였다”고 말한다.<sup>7</sup>

Regent 대학 명예 교수 Gordon Fee는 “고대의 예배 일부로서의 숭배 식사들에 대한 거의 보편적인 현상”과 “초대 교회에서 성만찬을 그러한 식사로 아주 유사하게 먹었다는 사

실"을 지적했다. Fee는 "처음부터 성만찬은 기독교인들에게 일년에 한번 거행되는 기독교인 유월절이 아니었으며, 오히려 주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주님의 만찬이었다."<sup>8</sup>

글라스고 소재 성경훈련원 교장 G. W. Grogan은 *New Bible Dictionary*에 글을 쓸 때, "(고전 11:17-37에 있는) 성만찬에 대한 성 바울의 이야기는 성만찬이 친교 식사 분위기였음을 보여준다 ... 성만찬에서 사랑과 식사를 분리하는 것은 신약시대 밖에 놓이는 것이다"라고 보았다.<sup>9</sup>

고린도 전서에 대한 주석에서 C. K. Barrett는 "고린도에서 성만찬은 순수한 상징적인 식사라기 보다는 아직 상징적인 중요성이 있는 활동들이 부가된 정상적인 식사였다"고 관찰하였다.<sup>10</sup>

예일 대학교의 교회사 교수 Williston Walker는 "예식들은 일요일에 있었으며, 아마 다른 날에도 있었다. 사도 시대로부터 이들 예식들은 두 가지로 구성되었다: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모임과 성만찬이 결합된 평범한 저녁 식사."<sup>11</sup>

Tennessee 주 Nashville에 있는 United Methodist Publishing House 편집자 John Gooch 박사는 "1 세기에, 성만찬에는 떡과 잔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식사가 포함되었다."라고 썼다.<sup>12</sup>

예일 대학교의 종교학 석좌 교수 J. J. Pelikan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자주, 평범한 식사가 차려진 가운데 거행되었다."<sup>13</sup>

### 기능들: 1) 예수님께 상기시킴

#### ITS FUNCTIONS: 1) REMINDING JESUS

식사의 절대 필요한 요소로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을 수행하였다. 이들 중 하나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 상기시키는 것이다. 언약 약속들의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것은 철저히 성경적 개념이다. 무지개로 표시된,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물로 다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창 9:16, 기욤임은 저자가 했음) 라고 선언하셨다.

이후 구속사에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일부로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이집트 속박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 2:24-25, 기욤임은 저자가 했음).

바벨론 포로 기간에,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맺으신 언약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나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겔 16:60 기욤임은 저자가 했음)을 기록했다.

성만찬은 새 언약의 표시이다 (The Lord's Supper is the sign of the new covenant). 예수님께서서는 잔을 드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8) 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언약 표시와 같이 언약의 약속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를 기념하라" (눅 22:19) 하기 위하여 떡에 우리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기념 (remembrance)"으로 번역된 그리스 단어 *anamnesis*는 "기억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문자대로 번역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기억하도록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앞에 있는 질문은 기억나게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한 것인가 이다. 독일 신학자 Joachim Jeremias는 예수님께서 *anamnesis*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것, "성만찬은 행해지는 기도 (enacted prayer) 일 것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셨다고 이해 했다.<sup>14</sup>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에서 "까지 (until)" (고전 11:26 *archri hou*)의 어근이 되는 그리스어는 단순히 시간적 참조가 아니고, 최종 조항 (final clause)와 같은 기능을 한다. 즉, 식사의 기능은 재림 (Parousia)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것이다.<sup>15</sup>

누가 복음 22:19의 단어들 "나를 (of Me)"은 하나의 그리스 단어 *emou*에서 번역되었는데, 이는 문법적으로 소유를 뜻한다 (기억나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다는 것을 암시함). 단순한 인칭 대명사 이상으로, 이는 소유 대명사이다. 따라서 교회는 성만찬의 떡에 참여할 때 다시 오신다는 약속과 우리와 같이 그 만찬을 드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예수님께 상기시켜야 한다 (눅 22: 16, 18). 이러한 빛 가운데 이해하면, 성만찬은 예수님께 재림하시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눅 11:2). 노아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무지개가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고통 소리가 하나님께 상기시켰던 것과 같이, 성만찬의 떡에 참여하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예수님께 상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고린도 전서 11:26에서 바울은 교회가 성만찬을 먹으므로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말하여 이 개념을 확인하였다. 누구에게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며, 왜 해야 하는가? 아마 틀림없이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주님에게 선포하는 것이다. "까지 (until)" 이면의 그리스 단어 *archri hou*에는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 사용된 대로, 이는 문법적으로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낼 수 있다.<sup>16</sup> 영어권 관례에 따르면, 나는 우산을 비가 그칠 때까지, 단순히 시간 틀 만을 나타내어,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산을 사용하는 것은 비를 그치게 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렇지만, 이는 고린도 전서 11:26에 있는 "까지 (until)" 이면의 그리스 단어가 사용된 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에게 떡과 포도주에 참여하는 것이 주의 죽으심(기억나게 하는 것)과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 설득하는 목표("까지")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면서, 성만찬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고대하는 것이다.

다시 오시도록 주님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개념은 요한 계시록 6장의 순교자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계 6:10) 라고 부르짖은 간청과 다르지 않다. 베드로가 그의 독자들에게 하나님의 날과 “속히 임하기를 (speed its coming)” 사모하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는가? 다시 오시도록 예수님을 설득하는 것이 무모한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이다” (마 6:10)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겠는가? 가장 초창기의 신자들(Didache(12 사도 복음집) x. 6에 나오는)이 성만찬과 관련된 기도에서 *maran atha* (“우리 주님, 오시옵소서”)를 사용한 것, “성만찬과 종말이 함께한 상황”은 흥미롭다.<sup>17</sup> 고린도 전서 16:22에서 사용된 단어 *maranatha*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에 대하여, R. P. Ralph 박사는 “고전 16:22의 *maranatha*는 성만찬 분위기에 잘 사용되어져서 단어의 결론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간구로 마치며 회중에게 단어가 읽혀진 후 식사를 거행하는 장면을 마련한다.<sup>18</sup>

## 기능들: 2) 일치성 창조

### ITS FUNCTIONS: 2) CREATING UNITY

성만찬이 진정한 식사라는 이 모든 강조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표시하는 떡과 포도주를 제쳐 놓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대로, 이들은 성만찬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남는다 (고전 11:23-26). 떡과 포도주는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표현 (representations) 하는 역할을 한다. 그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이 성만찬의 진정한 기초이다.

성만찬의 형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보여주는 풍성한 친교 식사)가 중요하듯이 떡과 포도주의 형태도 중요하다. 성경에는 감사를 위한 잔 (단수) 그리고 단 하나의 떡이라고 적혀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0:16-17). 하나의 떡은 구세주 안에서의 우리의 일치를 묘사할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10:17에 의하면 일치를 창조하기까지 한다. 영감된 글의 어법을 주의 깊게 봐야한다. 하나의 떡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한 몸이요, “이는” 우리 모두 하나의 떡에 참여 함이라 (고전 10:17). 잔뜩 쌓인 떡 조각들과 많은 주스 잔들에 참여하는 것은 불일치, 분열, 그리고 개인주의를 묘사한다. 적어도 이는 일치라는 수사적 표현을 완전히 빠뜨리고 있다. 어떤 학자는 성만찬이 “교회의 일치를 조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의도되었다”고 썼다.<sup>19</sup>

고린도 신자들 중 일부는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성만찬에 참여한 죄가 있었다 (고전 11:27). 부자 신자들은 가난한 신자와 함께 성만찬을 먹기를 거절하였다. 따라서, 부자들은 모임 장소에 매우 일찍 도착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는 부자들 중 일부는 취해 있었고 모든 음식은 이미 없어졌다. 가난한 사람들은 배고픈 채 집으로 갔다. 이러한 부끄러운 계층간 분열들은 성만찬이 성취하려는 일치감을 찢었다. 고린도 신자들의 남용들은 매우 나빠서 더 이상 성만찬이 아니고 대신 그들 자신들의 식사가 되어버렸다 (고전 11:21, NASV). 가난한 형제들을 주님의 몸으로 인식하지 못한 부자들의 실수는 하나님의 심

판을 초래하여 많은 이들이 아팠고 일부는 죽기까지 했다 (고전 11:27-32). 해로운 모임들에 대한 바울의 답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임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다 (고전 11:33). 매우 배가 고파서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은 “집에서 먹을지니” (고전 11:34) 라고 지도 받았다. 고린도 신자들이 일치하지 못한 일부 원인은 바로 한 개의 떡과 하나의 잔이 중심에 있는 실제의 식사로서의 성만찬을 함께 먹지 못한 때문이다.

### 기능들: 3) 교제

#### ITS FUNCTIONS: 3) FELLOWSHIP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누구든지 들어와서 먹으라고 (*deipneo*) 하시고 문을 여셨다, 교제와 대화의 그림 (계 3:20). 친교와 용인은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라는 개념은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 문화와 초기 히브리 성경에서부터 온 것이다. 출애굽기 18:12는 이드로, 모세, 아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는 것을 보여준다.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 장로들이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을 뵈고, 먹고, 마시는 더 성스러운 식사는 시나이 언약을 만들 때 있었다 (출 24:9-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출 24:11a)는 매우 의미 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음식을 그들이 먹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잔치 중의 교제”라는 주제는 사도행전으로 이어져서, 초대교회는 “떡을 떼는 교제” (2:42 문자적 번역)에 그들 자신을 헌신하였음을 우리는 배운다. 많은 영어 성경들에는 사도행전 2:42의 “가르침”과 “친교” 사이와 “떡”과 “기도” 사이에 “과 (and)”가 있으나, “교제”와 “떡” 사이에는 없다. 그리스어 성경에는 “교제”와 “떡을 떼”의 단어들이 동시 활동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그들이 함께 떡을 떼므로 인하여 서로간에 교제를 가졌다. 누가는 이러한 식사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행 2:46) 진행되었다고 알려준다. 마음이 끌리지 않는가?

많은 주석가들은 사도 행전 전체에 나오는 “떡을 떼”이라는 글귀를 성만찬과 연관 짓는다. 이는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그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떡을 가져 “떼어”라고 기록했기 때문이다 (눅 22:19). 이러한 판정이 옳다면 초대 교회는 혼인 잔치에서 즐기는 것 같이 성만찬을 교제와 기쁨의 시간으로 즐겼을 것이다. 이는 F. F. Bruce의 견해이며 사도 행전 2 장에서의 즐거운 교제는 실제적으로 떡을 떼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Bruce는 “떡을 떼”이라는 글귀가 평범하게 음식을 함께하는 것 이상을 나타낸다 ... 규칙적인 성만찬 준수가 확실히 가리켜지고 있다 ... 준수는 정상적인 식사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인다”<sup>20</sup>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은 장례식 분위기 이상으로 성만찬에 참여한다. 오르간은 조용히 묵상형 음악을 연주한다. 각자 고백되지 못한 죄가 있는지 영혼을 조용히 그리고 자기 반성적으로 찾으려는 모든 머리는 숙여지고 모든 눈은 감겨진다. 잔과 떡은 작은 상에 놓여져서 흰 천으로 씌워지는데 마치 장례식에서의 시신과 같다. 집사들은 운구인 같이 침울하게 떡과 포도주를 넘겨 준다. 이것이 진정 성만찬에 대한 사도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인



가? 바울이 비판한 것은 합당하지 않은 태도이지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합당하지 않은 태도는 주님의 상 앞에서 취하는 것이지 함께 식사하는 것이 아니며, 가난한 사람들이 배고픈 채 집으로 가면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동료 신자들 안에서 주님의 지체를 인식하지 못한 고린도 신자들과 같이 엄청난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자 식사에 도착하기 전 자신을 살펴야 한다 (고전 11:28-29).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 받을 염려 없이 식사에 갈 수 있으며 진정한 혼인 잔치를 의미하려는 성만찬의 교제를 즐길 수 있다.

## 빈도: 매주 1회

### ITS FREQUENCY: WEEKLY

신약 교회는 얼마나 자주 성만찬에 참여 했는가? 초기 신자들은 성만찬을 매주 먹었는데 이는 매주일 그들이 모이는 주목적이었기 때문이다. *Encyclopedia Britannica*를 다시 인용하면, 성만찬은 “기독교 경배의 중심 예식” 이고 “교회의 초창기부터 기독교 의식의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였다.”<sup>21</sup>

이에 대한 첫 번째 증거는 문법이다. “주의 날” 이라는 전문용어는 그리스어 글귀 *kuriakon hemeran*에서 온 것으로 축어적으로 “주님께 속한 날”이라고 읽혀진다. “주님께 속한” 이라는 단어들은 *kuriakos*에서 온 것이고 이는 신약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10과 고린도 전서 11:20에만 나오며, 바울은 “성만찬”이나 “주님께 속한 만찬” (*kuriakon deipnon*)에 사용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사용 간의 연관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매주 모이는 교회 모임의 목적이 성만찬을 지키는 것이라면, 주님께 속한 만찬을 주님께 속한 날에 먹어야 사리에 맞는 것이다 (주의 첫 날). 요한의 계시(계 1:10)는 명백히 주의 첫날에 있었는데, 이 날은 예수님께서 사망에서 살아나신 날이고 초기 교회들이 주님께 속한 만찬을 먹은 날이다. 부활, 그 날, 그리고 만찬은 마치 취사선택을 허용하지 않는 일괄 거래 상품같이 함께 동행한다.

두 번째, 교회 모임의 통상의 목적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성만찬을 먹는 것이다. 사도행전 20:7에서 누가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사도행전 20:7에 있는 “떡을 떼려 하여”라는 단어들은 목적 부정형 (telic infinite)이라고 알려진 것을 나타낸다. 이는 목적이나 목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들의 모임은 과육(果肉)을 먹는 것 (meating) 이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 모임의 목적을 언급하는 또 하나의 장소는 고린도 전서 11:17-22이다. 그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 (11:18a) 그들이 이미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모임들 (11:17)은 선을 보다는 해를 더 많이 행하였다. 그리하여 바울은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11:20). 이로부터 그들의 교회 모임들의 주된 이유는 성만찬을 먹는 것이었음이 분명하다. 슬프게도, 성만찬에 대한 그들의 남용이 매우 심각하여 더 이상 성만찬일 수가 없게 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들이 성만찬을 행하기 위하여 매주 모였다.

모임의 이유에 대한 세 번째와 마지막 참조는 고린도 전서 11:33 “그런즉 내 형제들이 먹으러 모임 때에 서로 기다리라”에 있다. 앞에서와 같이 그들이 모인 이유는 먹기 위한 것

임을 보여준다.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도록, 정기적인 매주 교회 모임에 대하여 성경에는 다른 이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모임에서 각자가 누리는 교제와 권면은 대단하다.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마을 주점에 대응된다. 이는 진정한 복된 식사이고 행복한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구성되는 지체에게 일치성을 창조하시는 시간이다. 교회 모임의 이러한 양상은 성급하게 형성되거나 대체되지 말아야 한다. 매주일 갖는 성만찬과 함께 “고린도 전서 14장의 글귀”에 있는 모임(가르침, 경배, 찬양, 증언, 등등이 있는 대화 시간)을 갖는 것이 물론 적합하다.

## 실천적 고려

### PRACTICAL CONSIDERATION

오늘날 성만찬을 정찬으로 실천하는 것은 교회에 큰 복을 주는方便이 될 수 있다. 이를 실천하는데 관련된 몇 가지 실천적 고려 사항들을 나열한다.

**태도(Attitude).** 성만찬이 매주 모임의 주된 목적임을 교회는 확실히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다른 형태의 예배 의식에 대한 선택수단이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다. 어떤 일요일에 교회가 성만찬을 행한 것이 전부 일지라도, 그 교회는 그 주의 모임을 갖는 주된 동기들 중 하나를 성취한 것이다.

**음식(Food).** 가능하다면, 함께 나눌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가져온 음식은 모두 함께 먹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음식 관리를 수월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라! 음식에 대하여 과도하게 계획하는 것은 재미를 많이 감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만든다. 미리 꼭 계획하여야 하는 것은 누가 하나의 떡과 포도주 음료를 준비할 것인가 이다. (우리 교회에서는 모임을 여는 집에서 항상 이들을 준비한다.)

**바침(Giving).** 식사를 축복하는 것은 신약 모범이고 올바르게 활동하는 교회 생활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각 가정이 가져오는 음식 장만에 사용하는 시간과 돈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리는 것의 일부이다. 단순히 매주 쟁반에 헌금을 내는 것 보다는, 식료품 가게에 가서 허용하는 한 최상의 음식을 사는 것이다. 이를 성만찬에 희생 제물로 가져오는 것이다!

**청소(Clean Up).** 청소를 쉽게 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포크들과 잔들과 함께 종이 접시와 휴지 사용을 사용하려고 할 것이다. 흔히 쓰레기와 함께 주방용품을 버리기 때문에, 금속 포크를 버리는 것 보다는 플라스틱 포트를 버리는 것이 낫다. 흘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인 집은 재사용 가능하고 씻지 않아도 되는 버들가지 세공 접시 집계를 제공한다.

**세부계획(Logistics).** 따뜻한 날씨에는 야외에서 먹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음식과 음료를 흘리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청소는 훨씬 쉬울 것이다. 접이식 상을 필요한 곳에 놓여질 수 있고 모임 후에는 따로 보관된다. 실내에서 식사해야 하는 추운 날에는 봉제 가구를 플라스틱과 천으로 덮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아이들은 장난이 심하기 때문에 그들만을 위한 자리를 상에 마련하여 그 자리에서 먹으라고 해야 한다.

**하나의 잔과 떡(One Cup and Loaf).** 식사 전에 잔과 떡을 드는 것은 이를 식사와 분리하여 별개의 행위가 되는 것이라고 깨달은 이들이 있다. 이는 마치 성만찬이 잔과 떡이며

나머지는 단순한 식사라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이분법을 극복하기 위하여, 떡과 잔을 성만찬의 다른 음식과 함께 상에 놓도록 유의해야 한다. 모임 전에 잔과 떡을 지목하게 하고 식사 기도에서 언급한 후, 뷔페 상에 다른 음식과 함께 놓는다. 이와 같이 하여 신자들은 음식을 담는 줄에서 잔과 떡에 참여하는 것이다.

떡은 무교병이어야 하고 포도 음료는 술이어야 하는가?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은 구출하실 때의 급함을 상징하기 위하여 무교병을 유월절에 먹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무교병을 사용하셨다. 성만찬에서 무교병을 사용한 이방 교회들에 대한 기록이 신약 성경에 없다. 신약 성경에서 누룩이 악과 연관되어 있지만 (고전 5:6-8), 이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마13:33)! 여기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는 자유의 문제이다. 포도주와 관련하여 고린도 전서 11장에 명백히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성만찬에 포도주가 사용되었음이 분명한데 이는 몇 사람이 취했기 때문이다.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학적 이유가 성경에는 없다 (하지만 창 27:28, 사 25:6-9, 그리고 롬 14:21을 고려하시오). 무교병과 대하여는, 각 교회가 정하면 되는 자유의 문제라고 생각된다.

**불신자(Unbelievers).** 불신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는가? 성만찬은 거룩한 약속의 식사이기 때문에 신자들에게만 의미 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음식일 뿐이다. 고린도 전서 14:23-25은 불신자들이 간혹 교회 모임들에 참여했음을 암시하고 있다. 불신자들도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배가 고프므로 그들을 식사에 초청하시오. 예수님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시오! 합당하지 않은 태도로 성만찬을 먹는 위험은 신자들에게만 적용된다 (고전 11:27-32).

**임명된 성직자(Ordained Clergy).** 임명된 성직자 만이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이 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요구 사항이 없다.

## 결론

### CONCLUSION

성만찬에 대한 신약 형태는 정식으로 수립되었으므로, 신자들이 직면하는 다음 질문은 오늘날의 교회들에 대한 주님의 의도이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신약 성경에 있는 먹는 방식대로 성만찬을 거행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가? 아니면 이는 예수님께는 별 관심이 없는 문제인가? 진정한 잔치인 초기 성만찬 형태로부터 이탈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이 실천한 성만찬 방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왜 원하겠는가? 교회들이 사도들의 전통을 고수했을 때 사도들은 분명히 기뻐하였고 (고전 11:2) 교회들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다 (살후 2:15). 우리는 이로부터 이탈할 권한이 없다.

초기 교회들이 성만찬을 정찬으로 거행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교파의 학자 집단들에는 일반적인 동의가 있다. 신약의 예로 돌아가자는 요청에 대한 논쟁이 일어난다. 지난 시절의 교회는 신약 모범으로부터 몇몇 군데에서 잠시 이탈했었다. 예를 들면, 천년 이상, 침례에 의한 신자의 세례는 기독교계에서 기본적으로 무시 했다. 종교 개혁 이후 오랫동안 무

시되었던 사도 전통은 다시 정착되었고 이제는 광범위하게 실천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은사 주의 교회나 오순절 교회들은 Isuzu Street 부흥 때까지 성령님의 은사들 중의 다수가 근 2000 년간 무시되었다고 말할 것이다. 성만찬에 대한 초기 교회의 관습을 무시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크나큰 복을 잃고 있다고 우리는 느낀다.

요약하여, 성만찬은 주일날 교회가 모이기 위한 주목적이다. 정찬으로 먹는 성만찬은 어린양의 혼인 만찬을 예표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 성만찬은 침울한 장례식 분위기라기보다는 즐거운 혼인식 분위기의 잔치같이 참여되어야 한다. 연회로서의 성만찬의 주요 이점은 각각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교제와 권면이다. 이러한 정찬의 분위기에는 모두가 참여하는 하나의 떡과 잔이 있어야 한다. 하나의 온전한 떡이 사용되는데 신자들 지체의 일치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자들로 구성된 지체 내에 일치를 창조하시는데 이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며 그리고 재림과 그의 교회와 다시 식사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아멘. 속히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 Steve Atkerson

## 토론을 위한 질문들

### Discussion Questions

1.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구약 성경의 예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는 성만찬의 "기념 (remembrance)" 관점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2. 1 세기 유대인들이 천국을 구세주 앞에서 함께 잔치하는 때라고 상상한 것에 대한 성경적 증거는 무엇인가?
3. 예수님께서서는 성만찬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된다고 말씀하셨다 (눅 22:16). 어떻게 그리고 언제 성취가 이루어질 것인가?
4.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잔치 분위기에서 거행되었다. 12 사도들이 앞으로의 성만찬들은 잔치들이 아닐 것이라고 어떤든 추론하지는 않았을까? 설명하십시오.
5. 초기 교회들이 성만찬을 어떻게 거행하였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합의는 무엇인가? 왜 이러한 합의가 중요한가?
6. 사도행전 2:42-47이 성만찬을 가리킨다면, 이들 식사들이 분위기를 당신을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왜?
7. 초기 교회가 매 주일 모인 것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 주어진 유일한 이유는 무엇인가?
8. 성만찬에서 한 덩어리의 떡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바울의 신학적 이유는 무엇인가?
9. 고린도 전서 11:17-22에서, 성만찬이 실제의 식사였다는 것을 무엇이 가리키는가?
10. 성만찬에 대한 고린도 신자들의 남용에 대한 성경적 해법은 무엇인가?
11. 고린도 전서 11:26의 단어 "까지 (until)"은 왜 단순히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가리키나?
12. 고린도 신자들 중 일부가 저지른 무슨 "합당하지 않은 태도"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

여 죄를 저질렀는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가?

13. 초기 교회들이 성만찬을 먹은 빈도에 대하여 어떤 증거가 있는가?
14. 성만찬의 원래 형태(상징적 의식 또는 실제 식사)는 무엇인가?
15. 성만찬의 원래의 초점은 과거를 되돌아 보는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보는 것인가?
16. 성만찬의 원래 기능들은 무엇인가?
17. 예수님께서 미래의 성취까지는 이를 다시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를 다시 먹으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왜?
18. 죽음의 위협 (고전 11)이 있고 고린도 전서 10장은 (더욱 놀라게 하는!) 귀신들과 함께 먹음을 얘기할 때 어떻게 성만찬이 혼인 잔치같이 거행될 수 있는가?
19. 성만찬의 원래의 빈도, 형태, 초점(과거 또는 미래) 그리고 기능들은 무엇인가?
20. 잔과 떡이 식사에 통합되어 잔치의 다른 부분과 분리 된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 초기 교회의 관습이 현대 교회가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에 어떤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는가?
22. 성만찬을 실질적인 거룩한 식사로 거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교회가 잃는 복은 무엇인가?

주(註): NTRF는 신약 교회 생활을 인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사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www.NTRF.org](http://www.NTRF.org)에서 *The Practice of The Early Church: A Theological Workbook (Leader's Guide)*를 신청하기 바란다.

## Notes

<sup>1</sup> Fritz Reinecker & Cleon Rogers, *Linguistic Key to the Greek New Testament*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0), 207.

<sup>2</sup> Jaroslav Jan Pelikan, "Eucharist," *Encyclopaedia Britannica*, ed. Warren Preece, Vol. 8 (Chicago: William Benton, Publisher, 1973), 807-808.

<sup>3</sup> R. P. Martin, "The Lord's Supper," *The New Bible Dictionary*, ed. J. D. Douglas (Wheaton, IL: Tyndale House Publishers, 1982), 709.

<sup>4</sup> Frederick Godet, *Commentary on Luke* (Grand Rapids, MI: Kregel Publications, 1981), 314.

<sup>5</sup> *1599 Geneva Bible* (White Hall, WV: Telle Lege Press, 2006), 1180.

<sup>6</sup> C. K. Barrett, *Black's New Testament Commentary,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68), 263 & 277.

<sup>7</sup> Donald Guthrie, *New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Press, 1981), 758.

<sup>8</sup> Gordon Fee, *New International Commentary on the New Testament, The First Epistle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7), 532, 555.

<sup>9</sup> G. W. Grogan, "Love Feast," *The New Bible Dictionary*, ed. J. D. Douglas (Wheaton,

---

IL: Tyndale House Publishers, 1982), 712.

<sup>10</sup> Barrett, 276.

<sup>11</sup> Williston Walker,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3<sup>rd</sup> Ed.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970). 38.

<sup>12</sup> John Gooch, *Christian History & Biography*, Issue 37 (Carol Stream, IL: Christianity Today), 3.

<sup>13</sup> Pelikan, 808.

<sup>14</sup> Colin Brown,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III (Grand Rapids, MI: Zondervan, 1981), 244.

<sup>15</sup> Joachim Jeremias, *The Eucharistic Words of Jesus* (New York, NY: Charles Scribner's Sons, 1966), 252-254.

<sup>16</sup> Reinecker, 34.

<sup>17</sup> Barrett, 397.

<sup>18</sup> Martin, 709.

<sup>19</sup> Pelikan, 807.

<sup>20</sup> F. F. Bruce, *Acts of The Apostles*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1), 97.

<sup>21</sup> Pelikan, 807.